완벽하지 못한 스스로를 바라본 기억? (1000자 내)

나는 엄마에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아빠에겐 자랑스러운 딸, 오빠에겐 놀릴 수 있는 동생, 동생에게 도라에몽 같은, 제 2의 엄마이다. 또한 가정내에서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통한다.

그러나, 난 여전히 부족하다. 시사에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귀찮은 건 딱 질색이다. 심지어 잘하는 건 없다. ‘열심히’가 내 주무기였는데 최근 생각이 바뀌려고 한다. 객관적으로 난 열심히 살지 않았다. 성공한 그 사람들의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한다. 난 설에도 쉬었고, 일요일에도 종종 쉬었다. 그리고 지금은 노력했다는 이유로 4개월째 늘어져 있다. 정말 한심하다. 또한 모든 일에 떳떳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때론 비굴했고, 움츠러 들기도 했다. 떠오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비판만 했을 뿐 행동할 용기도, 시도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정말 행동력이 없고 게으르다. 3개월 전부터 계획한 다이어트는 3개월 째 아직도, 여전히 계획 중이다. 자존감에 관련한 책에서 읽은 바가 있다. “거울을 보고 생각해보라. 내가 나의 결혼상대라면 과연 결혼하고 싶은가?”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비참했다. 다른 이에게는 엄격했으나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살았나. 나라도 날 안 좋아하겠는데 남이라고 좋아할까. 이런 방식의 자기비난은 끝없이 나락으로 나를 몰고 간다. 안되는데, 안되는데… 생각이 많아진다는 게 이런걸까. 정말 쓸데없다. 난 이럴 때 종종 사람을 찾거나 운동을 하거나 정 안되면 펑펑 운다. 그리고 이런 고찰은 잠정 결론이지 끝맺음은 안되는 것 같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런 시간을 갖고 그럼으로써 부족함을 메워가는 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본다. 오늘도 많이 모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야 지금까지 고생했고, 험난한 세상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